

연길 해란명주탑

‘생태 + 문화 + 기술’ 관광 명소로 거듭



연길 모아산에 우뚝 솟은 해란명주탑 181미터 높이의 360° 전망대에서 바라보면 푸르름으로 차넘치는 연길시와 룡정시의 도시 풍경이 한눈에 안겨온다. 산 아래로 굽어보면 벼파도가 바람에 넘실거리고 해란강과 부르하통하가 멀리에서 만나 두만강으로 흘러간다.

광동에서 온 관광객 채우는 눈앞에 펼쳐진 도시와 시골의 어우러짐, 산과 강과 눈이 어우러진 그림 같은 풍

경을 보며 감탄을 연발했다. “이런 아름다운 경치는 정말 보기 드문 풍경이에요. 독특한 조선족 민속 풍경을 감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진정한 연변 음식도 맛볼 수 있어서 이 같은 문화관광 복합 공간을 찾아온 보람이 있네요.”

해란명주탑은 수많은 외지 관광객들의 ‘인생샷’ 명소로 자리매김한 것은 물론 연길시와 룡정시 등 주변 지역 주민들의 휴가 명소로도 각광받

고 있다. 연길 시민 김준은 “평소 주말이면 가족들과 자주 모아산에 등산하러 왔는데 해란명주탑이 리모델링된 후에는 즐길 거리가 더 다양해져 아이들이 너무 좋아한다.”고 전했다.

해란명주탑 전신은 기상탑이다. 주탑 건설은 2009년에 시작되어 2014년에 완공되었으며 올해 4월 30일 새롭게 단장을 마치고 정식 개방되었다. 동시에 기존 기상관측 기능을 유

지하는 동시에 문화 전시, 관광, 레저 엔터테인먼트, 상업 소비 등 다양한 기능을 융합한 복합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특히 해란명주탑은 기상 과학을 주제로 한 체험형 박물관을 조성해 방문객들이 이곳 기상탑의 ‘역사와 이야기’를 알아갈 수 있도록 했다.

해란명주탑은 총 32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30층의 공중 유리잔도는 방문객들에게 광활한 전망을 선사하는 명소로 ‘장백산 아래 사과배 열리고 해란강만 벼꽃 피네’의 가사 풍경을 눈앞에서 느낄 수 있다.

31층에는 구름카페가 마련되었는데 ‘구름 커피’ 한잔을 손에 들고 일출과 일몰, 흐르는 구름을 바라보며 여유를 만끽할 수 있어 현지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마음을 치유하고 평온을 즐기는 아늑한 휴식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료해에 따르면 해란명주탑의 개방은 모아산 관광 개발 대상의 핵심 성과로 연길시는 최근 해란명주탑, AI 공공박물관, 조선족민속원 음식거리 리모델링을 완료하고 부르하통하 종합개발, 1978 문장단지 등 10여개 주요 관광 대상을 추진하며 ‘생태 + 문화 + 기술’ 융합 전략으로 관광산업을 고도화시켜 올해 상반기 관광객 523만 5,000명, 관광수입 73억 5,000만원을 실현해 전년 대비 각각 13%, 5.8% 상승했다.

/ 김령일보

연변 최초 대규모 꽃밭 캠핑장 시범 운영 시작



룡정시당위 선전부로부터 알아본 데 따르면 룡정비암산관광풍경구에 새롭게 마련된 ‘안녕’ 꽃밭 캠핑장이 이달 26일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아름다운 꽃밭과 특색 있는 캠핑을 결합해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안녕’ 꽃밭 캠핑장은 연변 최초로 대규모 꽃밭과 정교한 정원형 캠핑을 결합한 대형 야외 휴양지로 주목받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꽃밭 + 캠핑’을 핵심 콘셉트로 가벼운 러시리 마키로 (集轻奢微) 레저, SNS 인생샷 명소, 가족·친구들과의 휴식 공간을 아우르는 복합 관광지로 조성되었다.

룡정시 비암산 ‘안녕’ 꽃밭 캠핑장은 40헥타르 규모의 라벤더, 경매, 마편초, 백일홍 등 계절별 피는 다양

한 꽃으로 장관을 이루며 ‘서운원’ 등 7개 테마별 프리미엄 캠핑 존과 자유 텐트 설치 가능한 DIY 잔디구역을 갖춰 ‘텐트 문 열면 바로 꽃밭’이라는 독보적인 경험을 제공한다.

룡정비암산관광풍경구 ‘안녕’ 꽃밭 캠핑장은 시범 운영 기간 꽃밭 사진 공모전, 플라워 아트 클래스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오픈에어 영화관, 별빛 캠프파이어, 새벽 요가, 자연 학습 프로그램, 가족 공예 워크숍 및 기업 맞춤형 팀빌딩 활동을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연변 특산품을 활용한 전문 바비큐 존과 장비 대여 서비스를 운영해 방문객들이 화사한 꽃밭과 아름다운 별빛 아래에서 특별한 미식 경험을 즐길 수 있도록 계획이다.

/ 김령화기자

연길시 하남거리 ‘변성연화 공급판매장터’ 인기

연길시 하남거리에 위치한 ‘변성연화 공급판매장터’가 일선 정식 운영을 시작했다. 이는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보다 풍부하고 다원적인 야간 소비 체계를 제공하고 연변 야간경제 산업이 전문화, 품질화, 정밀화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조력하게 될 전망이다.

여름이 내리고 화려한 조명이 반짝이기 시작할 때, 한때 잠잠한 무성하던 이곳이 부지런히 2만평방미터의 활기찬 시장으로 변모한 것을 볼 수 있다. 로컬들이 즐어들어오고 인파가 북적이는 이곳에는 지역 특색 음식부터 인터넛 인기 음식까지 다양하게 갖춰져 있어 생생한 삶의 기운이 느껴진다. 이 장터는 연변주공급판매집단에서 책임지고 운영하는데



‘국유기업 주도 + 민간기업 관리’의 모식을 혁신적으로 채택했다. 시험 운영 20여일 만에 방문객 18만명을 유치했고 900만원 이상의 생산액을

창출해 연변주 야간경제의 ‘인기주역’으로 떠올랐다.

연변주공급판매집단총회사 책임자 장립국은 “장터는 상가 200여개를

유치해 628명의 취업을 해결했다. 또한 향촌 진흥 조력, 장애인 지원 및 대학생 창업을 위한 공익부서도 마련해 청년층의 창업과 취업에 발판을 제공했다.”면서 “앞으로 ‘삼농’ 봉사를 위한 농산물 시장도 만들어 향촌 진흥에 조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일평균 근 1만여명이 이곳을 방문하는 가운데 장터에서는 ‘과학기술 + 인성화’의 모식으로, 지능 시스템, 데이터 플랫폼과 인원교대 등 방식으로 경영대상, 수급부사, 안전보장과 기초시설 등 전반 봉사 체계에 대해 통괄계획과 협동보장을 진행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변형하고 안전하며 질서적인 야간 봉사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 연변라디오 TV넷

연변 일부 관광지, 현지 주민들에게 특별 혜택



여름철 시민들의 문화생활을 풍부히 하고 다양한 피서와 레저 선택지를 제공하기 위해 연변의 일부 풍경구에 서는 현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입장권 무료 또는 할인 정책을 적극 시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 문화관광 발전을 촉진하고 있다.

중국조선족민속원은 특별 야간 해택으로 10월 8일까지 매일 18시 30분 이후 연변 주민은 신분증 제시 시 무료 입장을 허용하며 야간 특별 민속 체험을 제공하는 한편 피서객 편의를 위해 7월 1일부터 9월 7일까지 운영 시간을 08:30 - 21:00(입장 마감 20:30)로 연장한다.

훈춘시의 발해고진풍경구는 현지 거주민(훈춘 신분증, 부동산증 또는 거주증 소지자)을 대상으로 12월 31일까지 발해고진 연간 리용 카드를 무료로 발급하며 년중 무제한 얼굴인식 전용 통로를 통해 자유롭게 관광할 수 있도록 한다.

도문통상구풍경구의 중국조선족무형문화유산전시관은 현지 거주민을 대상으로 년중 무료 개방 정책을 시행중으로 도문 시민은 신분증 지참 시 무료로 해당 전시관을 방문해 조선족 무형문화유산의 독특한 매력을 깊이 있게 체험할 수 있다.

돈화시록정산문화풍경구의 성련지(圣莲池)구역 및 환로나무잔도는 6월 26일부터 9월 14일까지 매일 새벽 5시-7시와 저녁 5시-7시 30분 년간 리용권 소지자 또는 무료 입장 혜택 대상자(유효한 신분증 지참 필수)인 돈화시 시민에게 특별히 개방되는데 이 두 서늘한 시간대에 방문객들은 환로나무잔도를 따라 아름답게 산책하며 평온한 호수와 산의 경치를 즐길 수 있다. 한편 해당 시간대에는 지정 구역내 모든 차량 진입이 금지되며 나무잔도에서의 자전거 타기 역시 엄격히 금지, 순수 보행만 허용된다.

/ 연변조간

2025년 연길시 피서 야간관광 시즌 가동

26일 저녁, 연길시 2025년 여름 피서 야간관광 시즌 문화관광 활동가동식이 부르하통하 강변에서 열렸다.

이날 개막식에서는 다섯가지 특색의 야간 문화관광 코스를 발표했다. 이 코스는 야간 소비 잠재력을 전면적으로 활성화하여 경제, 사회의 질 높은 발전에 강력한 ‘밤의 동력’을 불어넣게 된다.

다섯가지 테마 야간관광 코스로는 ‘야간 다리 관광(빈하운량-광영분수, 빈하공원)’, ‘야간 강 관광(연서교 부두 유클럽-부르하통하 음악분수-부르하통하 강변-청년광장)’, ‘야간 산 관광(공룡왕국-왕자영요대회-해란명주탑-중국조선족민속원-민속원미식거리)’, ‘야간 거리 관광(인민공원-연변대학 인기 왕홍벽-플래시몹 공연)’, ‘야간 대회 관람(《사계절의 노래》-《영원히 시들지 않는 꽃》-갑골리극 관람-발전미식거리-소시장거리)’ 등이 포함된다.

연길시는 이런 다양한 테마 코스에 다채로운 민속풍경, 미식 체험, 여가 오락, 도시 야경 등 여러 요소를 융합하여 다원화된 야간 문화관광 소비 공간을 조성하고 시민과



관광객들의 고품질 야간 문화관광 생활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고 동시에 개방적이고 포용적이며 활기찬 야간 관광 환경을 조성하여 찬란한 밤 풍경이 연길 문화관광의 새로운 명함이 되도록 한다.

보이게 된다. 나아가 도시 야간 소비 활력을 더욱 활성화하고 대표적인 피서관광지를 조성하여 찬란한 밤 풍경이 연길 문화관광의 새로운 명함이 되도록 한다.

료해에 따르면 올해 연길시는 문화관광 대상건설에 박차를 가하며 새로운 문화관광 랜드마크 조성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 김영화기자

연길 새로운 랜드마크 등장, 빈하운량 정식 개통

26일 저녁, 연길시 빈하운량이 정식 개통된 가운데 많은 시민들이 빈하운량에 모여 음악분수쇼를 감상했다.

빈하운량은 연길시의 새로운 랜드마크이자 중점 민생 대상으로서 올해 4월에 주체건설을 가동하여 128개 시공일에 걸쳐 완공되었다.

이 대상은 부르하통하 신민교-천지교 구간에 위치했으며 총투자는 3,400만원이다. 남쪽으로 빈하공원, 북쪽으로 연하로와 연결되며 다리 총길이는 620미터이다. 그중 A선의 길이는 312미터이고 B선의 길이는 308미터이며 표준교의 너비는 4미터이다. 이 대상의 전체 설계는 ‘외룡비약’의

조형으로 연길의 비약을 의미하는데 다리 란간은 흰색으로 곡선과 구멍이 결합되어 물살과 바람의 동적 이미지를 모의하며 다리의 경쾌감과 시각적 장력을 강화했다. 야간 조명 디자인은 다채로운 그라데이션 조명과 따뜻한 흰색이 교차되어 층차가 분명하고 역동적인 시각 효과를 조성했다.

연길시수리국 부국장 왕백강은 “빈하운량은 야간 조명의 변화와 음악분수의 조명 효과가 서로 배합되어 층차가 풍부하고 리듬감이 넘치는 조명이 형성함으로써 연결의 또 하나의 아름다운 풍경으로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 연변뉴스넷